

[사회]

로스쿨 정원 지방 배정 축소 움직임

“지역균형발전 외면 안된다”

전남대·조선대 반발

이달말 있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정원의 지방 축소와 수도권 확대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지역 로스쿨 신청 대학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 41개 로스쿨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를 벌이고 있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신인령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 총장들이 로스쿨 정원의 배분 비율을 52(수도권)대 48(비수도권)로 지키라고 하는데 그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실사 과정에서 비수로 작용할 수 있는 5%(정원 100명)가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수도권대 비수도권 정원

비율은 최대 57대 43까지 벌어진다. 비수도권 17개 국·공립 대학 총장은 최근 대구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기존의 52대 48의 배분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로스쿨에 대해 “로스쿨 도입은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현재 수위에 전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속명여대 총장이 오른 것도 지역 대학들에겐 악재다. 이 총장은 평소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정원 비율을 7대 3으로 주장했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조선대 김춘환 법대학장은 “로스쿨 실사단을 총괄 지휘하고 로스쿨 인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원장이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꾸 각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각 지역의 인구나 사건 수입 수 등을 비교해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전남대 송오식 법대 부학장은 “현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잘 배어있는 만큼 법률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로스쿨 설치가 논의된 초기에는 지방의 비율이 60%로 오히려 높았는데 서울지역 대학의 로비에 의해 서울 몫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지금의 52대 48 안 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 소외 및 정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연무 습격' 왜

중국 오염물질 서풍 타고 이동 고기압 영향으로 못 빠져나가

광주·전남이 연무(煙霧·haze)의 습격을 받았다. 8일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연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8일 오전 10시 시정거리(視程距離)가 50m에 불과했다. 연무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항공 8700편이 결항되는 등 여객기 13편이 결항됐으나 오후 4시부터 재개됐다.

광주공항의 경우 ▲가시거리 800m ▲운고(雲高·구름 밑 부분의 고도)가 60.60m를 넘어야 이·착륙을 할 수 있다.

연무현상과 함께 광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5일 100 $\mu\text{g}/\text{m}^3$ 까지 오르며 ▲6일 170 $\mu\text{g}/\text{m}^3$ ▲7일 179 $\mu\text{g}/\text{m}^3$ ▲8일 192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았다. 이는 평소 미세먼지 농도 수준인 40~50 $\mu\text{g}/\text{m}^3$ 보다 3~4배 가량 높은 것이다.

기상청은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면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높은 겨울 기온 때문에 아침에는 얇은 안개가 끼다가, 미세먼지와 물방울이 섞이면서 오후부터는 연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무는 9일 이후 약해질 전망이다.

전남대 병원 관계자는 “연무에 장시간 노출되면 목이 따끔거리거나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우중충한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구름이 많겠다.

1월 9일 (음 12월 2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8℃
부산	구름 많음	2~8℃
대구	구름 많음	3~9℃
대전	구름 많음	2~9℃
전주	구름 많음	-3~8℃
서울	구름 많음	-2~9℃
인천	구름 많음	-2~10℃
안동	구름 많음	-1~8℃
울릉도	구름 많음	-3~8℃
독도	구름 많음	-1~8℃
제주	구름 많음	-1~7℃
목포	구름 많음	-4~7℃
여수	구름 많음	5~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남해동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1:30 썰물 < 07:02
여수 밀물 < 01:29 썰물 < 07:00

▲해돋이 07:41 ▲해질 17:36 ▲달돋이 07:37 ▲달질 17:13
◇주간날씨 기상안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씨						
최저/최고	-2/7	2/5	-1/6	-3/3	-3/3	-4/4

광주 6만명 서명펜 주민투표 청구 가능

총 청구권자 101만여명

올해 광주시민들은 1만여명이 모이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약 6만명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08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4천509명을 빼고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179명을 더해 총 101만1천2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시 조례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도록 돼 있어 5만19천48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별 주민투표 청구역시 각각 정한 조례에 의거해 동구는 7천612명(12분의 1), 서구 1만4천467명(15분의 1), 남구 1만4천159명(11분의 1), 북구 2만4천23명(14분의 1), 광산구는 1만9천167명(11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는 청구 대상인 시청 또는 구청에서 주민투표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필요한 주민 수 만큼 서명을 받아 첨부하면 되며,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확정된다.

주민투표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주민 수는 주민투표와 달리 19세 이상 주민으로 총 103만264명이며, 여기에 조례에서 정한 비율(85분의 1)을 적용하면 1만2천1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자치구별 필요 서명인 수는 동구 2천321명(40분의 1), 서구 5천527명(40분의 1), 남구 3천973명(40분의 1), 북구 6천861명(50분의 1), 광산구 5천362명(40분의 1)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뿌연 도심... 시계 50m

8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가 수십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와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이날 오전 광주의 시정거리는 불과 50m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여수경찰, 경위 조사

여수경찰은 8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김모(38·여수시 연등동)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여수시 연등동 자신의 집에서 여수 모 중학교 3년 김모(15)군을 당구채로 머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는 15년 전 아내와 이

혼한 뒤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최근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아들을 상습 폭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김군의 온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고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 김씨가 상습적으로 김군을 폭행해 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군의 사체를 부검할 예정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매년 늘어

광주 지난해 109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지난 2005년 75건, 2006년 87건, 2007년(11월 말 현재) 109건으로 늘었다.

폭력 유형의 경우 전체 상담건수 109건 중 신체폭력이 86건(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언어폭력 10건, 경제적인 학대 6건, 기타 7건으

로 나타났다. 또 남편 등의 폭력으로 인해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주여성도 2005년 6명, 2006년 12명, 2007년 15명으로 늘었다.

광주 여성의 전화 권희희 상담소장은 “이주여성을 가운데 상담수가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적 격차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해외여행객 올 첫 콜레라 자녀 성씨 변경 신청 급증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마닐라발 항공기 단체승객 2명이 설사증세를 보여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이 중에서 한 명이 콜레라 환자로 확인돼 격리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역학조사와 함께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명단을 해당 시도 보건소에 통보해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해외여행객 가운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새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이 시작된 새해 초부터 자녀의 성(姓) 및 본(本) 변경과 친 양자 입양 청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지방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성씨 변경 관련 신청은 모두 48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2건에 달하고 있다.

광주지방 산하 지원 별로도 이 기간 동안 ▲순천지원 29건 ▲목포지원 19건 ▲해남지원 6건 ▲장흥지원 1건이 접수됐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광역시 3시절 전국마라톤대회

시: 2008. 1. 15(토) 08:00
장: 광주광역시광주일보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출발코스: 동문로, 개천로, 여수, 200
종료코스: 2008. 1. 15(토)
종료장소: 신세계백화점 앞

문의처: 010-9950-1111

광주광역시, 정리남도, 광주일보사